

포스코, '기업시민'에서 미래의 길 찾는다

포스코포럼 개최...최정우 회장 "우리 정체성이자 실천적 경영 이념" 가치 혁신 통해 사업 구조·성장 전략 점검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포스코(회장 최정우)가 기업시민에서 미래의 길을 찾는다. 포스코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 인제대학교에서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진단하고 그룹의 미래 사업전략을 조망하기 위한 포스코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그룹사 전 임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계 전문가 40여명을 초청해 '100년 기업을 향해, 기업, 시민이 되다'를 주제로 열렸다. 매년 그룹 전 임원 등 사내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 전략에 대해 논의하던 '전략대토론회'를 확대한 것이다.

연사와 청중이 소통할 수 있는 심플로우(symflow)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흘간의 포럼을 함께한 최 회장은 "국내외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으로 산업 변화에 따른 소재간 협업을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 확보에 관심을 기울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 혁신과 고객에 대한 가치 혁신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포스코의 기업시민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이자 실

기업시민 의식
개인과 마찬가지로 기업 역시 지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는 의미로 최근에는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의 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기업이 사회로부터 우수한 경영자원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고, 그에 상응해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해야 기업시민이 된다는 주장이다.

천적 경영이념이다. 이제는 구체적인 기업 시민 실천을 통해 체계화·내재화하고 우리의 문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의 결과를 머릿속 깊이 각인해 사업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가자들은 첫째 날 대외 거시 경제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경영환경세션'을 가졌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경제적 환경에 대한 강의와 '미·중 무역전쟁 속 위험과 기회'를 주제로 한 강연과 토론에 이어 한 비자, 사기(史記) 등 중국 역사 속 인물과 사례를 통해 리더십과 소통, 조직운영의 원리 등에 대해 탐구했으며 저성장시대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그룹 사업구조와 성장전략을 점검했다.

둘째 날에는 포스코의 기업시민 활동 1년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인천 송도 인제대학교에서 열린 '2019 포스코포럼' 중 패널토론회 모습. 왼쪽부터 양원준 포스코기업시민실장, 라국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송호근 포스텍 석좌교수.

의하는 '기업시민세션'과 미래 트렌드 변화에 따른 사업의 진화를 다루는 '사업전략세션'이 열렸다.

기업시민세션에서는 기업시민의 본질과 성공 조건에 대한 강의와 함께 지난 1년간 포스코의 기업시민 활동을 되돌아보고, 추진 방향 등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공생가치와 산업생태계, 기업시민 활동과 사회적 공감, 신뢰와 창의의 조직문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주제로 한 리더십과 소통, 조직운영의 원리 등에 대해 탐구했으며 저성장시대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그룹 사업구조와 성장전략을 점검했다.

둘째 날에는 포스코의 기업시민 활동 1년에 대해 점검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

라화와 미래 배터리 모습 등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에너지전환 시대, 미래 에너지 생태계'에서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성장전략을 다뤘으며, '4차 산업혁명과 Smart Factory & City' 분과에서는 Smart Factory & City의 글로벌 동향과 기회 요인을 진단했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포스코그룹 임원들이 이들과의 세션을 종합해 포스코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포스코는 포럼에서 토론한 내용을 종합해 내년 사업계획과 향후 중기 사업전략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 관광 경쟁력 높이기 총력

내일 워크숍 열고 시책 발굴

광양시가 지역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12일 삼전강강둑마을 휴양소에서 관광과 전 직원 및 광양신문 화교관광해설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관광 경쟁력,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관광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급변하는 관광트렌드에 대응하며 관광 우수 지자체 사례를 통한 역점 관광시책 발굴을 목적으로 기획했다.

워크숍은 전문가 초청 특강과 토론에 이어 삼전강강둑마을을 프로그램 체험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여행분야 베스트셀러작가 이종일 전한 국여행작가협회장으로부터 관광자원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여행 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관광 경쟁력 제고 방안'을 듣는다.

또 제1회 한국관광혁신 대상 수상한 인식 위크업 문화관광재단 대표의 '강진군 사례로 보는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으로 관광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광양시 실정에 맞는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간다.

이어 이화업 관광과장 주제로 광양관광

경쟁력 제고 아이디어 토론과 관광업무 종사자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화업 광양시 관광과장은 "광양관광의 중추 역할을 하는 관광과 직원들과 관광 현장에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함께 광양관광의 미래를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광경쟁의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육성전략은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관광시스템과 수용태세 구축을 위해 관광관계자를 비롯해 시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확대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워크숍이 열린 삼전강강둑마을은 다목적실, 건강관리센터, 식당·숙박시설을 갖춘 휴양소로 매실·감·밤 등 계절별 농산물 수확, 직접 찌러 먹는 시골밥상, 쪽염색, 다도, 아트자전거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지난 7월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도 지정돼 직접 체험과 내적만족에 가치를 두고 오랜 시간 현지에 머무는 스테이케이션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로컬여행지로 부상을 기대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매화축제, 18개 명품우수축제대상 선정

광양시는 제21회 광양매화축제가 지난 8일 국회 본관 귀빈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내고향명품'에서 18개 명품우수축제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명품축제시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류문화산업진흥원·도전한국인운동본부가 주관한 '제3회 대한민국 내고향 명품축제'에서 제21회 광양매화축제는 1000여개가 넘는 지역축제들을 제치고 18개 명품우수축제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사진>

또 우수축제 부문별 평가 상위 축제에서 파워블로그기자협회가 선정한 8개 축제와 네이버, 뉴스, 블로그 등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도전 빅데이터' 부문 9개 축제에 동시에 포함됐다.

이번 명품우수축제대상은 앙케이트를 통해 관광전문가들의 의견을 집계하고 결과를 다시 회담자에게 보내는 방식을 여러번 반복 압축해 최종 18개 우수축제를 도출하는 델파이조사와 전문가 판단을 토대로 선정됐으며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들



과 파워블로거들의 평가도 반영했다. 올해로 3회를 맞는 '대한민국 내고향 명품축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살린 우수축제를 격려하고, 발굴·홍보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광양시 관계자는 "1000여개가 넘는 지역축제 중에서 관광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복적으로 앙케이트한 과학적이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가 광양매화축제를 우수축제로 선정하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마을만들기 사업 성과...익신마을 사랑방 준공식

광양시는 광양읍 익신마을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일 '익신마을 사랑방' 준공식(사진)을 가졌다고 밝혔다.



'광양읍 익신마을만들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익신마을 주민들이 지난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농촌현장포럼을 진행하고 직접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사업이다.

전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 평가를 거쳤으며 국비 70%인 3억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등 총 5억원이 2년간 지원된다.

사업 선정 이후 지난 5월 착공해 지상 1층 연면적 66.0㎡의 익신사랑방과 마을 안전현스 186m, CCTV 7개소, 가로등 9

개소등 사업을 마쳤다.

시는 이 사업이 공동체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 익신 일반산업단지 근로자의 소통과 화합, 지속가능한 상생의 공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광양시는 그동안 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6년 2개 마을, 2017년 4개 마을, 2018년 6개 마을, 2019년 4개 마을 등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시립도서관, 2개 단체와 평생학습 진흥 업무협약

광양시립도서관(중앙·중마·희망·용강도서관)은 지난 7일 광양중앙도서관에서 지역 사회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협약식은 도서관운영과장과 도서관 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읍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창덕마을공동체 해봄'(대표 김광성)과 '전남국제문화교류센터'(대표 김재영) 두 단체의 대표 및 관계자와 함께 진행됐다.

협약에는 창덕마을 주민, 외국인인을 위한 교육강좌 및 강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장소 제공,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상호 기관의 홍보 등을 담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오늘 협약이 광양시민의 평생학습과 책 읽는 문화도시로 성장하는 또 다른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덕마을공동체 해봄은 '51%의 나눔과 49%의 자존감'이라는 목표로 광양 창덕에비빌아파트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동아리 활동, 문화체험활동, 지역 봉사 등을 펼치고 있다.

또 전남국제문화교류센터는 국제문화교류 자원이 빈약한 광양읍을 중심으로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외국인과 언어문화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방치된 묘지 70%(추정)

아직도 묘지를 선호하십니까?

062-412-2800

잊혀지지 마세요.
잊지마세요.
자연에서 기억하세요.
사람은 원래 자연입니다.

자연장의 장점

- 매장이나 봉안에 비해 비용이 매우 저렴합니다.
- 관리가 편하며 반영구적입니다.
- 생활공간과 가깝습니다.
- 국토를 효율적 활용 자연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수목장 * 자연장

자연과 인간이 함께하는 새로운 장묘문화입니다

화장한 후 잔디나 화초, 나무 밑에 유골을 묻어 고인을 자연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장묘문화입니다.

보성수목장

보성군 노동면 소재
순천화장장에서 52km(약 50분 소요)

함평수목장

함평군 대동면 소재
광주화장장에서 46km(약 50분 소요)
목포화장장에서 39km(약 35분 소요)